

第18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6.2.14.~2.1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77
II.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79
III.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85
IV. 부록	
1. 의사일정안 .....	191
2.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	193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	247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55
5. 조례심사보고서 .....	261
6. 결의문채택의건 .....	267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8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님께서서는 교원 인사작업 관리 관계로,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께서서는 교육부 회의 참석차 출장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노재전 교육국장

### 1. 경과보고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상황, 도의회 안건 처리 상황,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6일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5회부터 18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에 이송한 안건 중 도의회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처리된 총 5건의 조례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월 개최되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증원을 요구한 87명 중 64명을 감원하여 2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같은 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결의문채택의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보



고의건을 처리하시고 충청북도중학교학교  
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  
개정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  
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  
며, 본회의 산회 후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2월 15일은 2005년도 직속기관 주요업  
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월 16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  
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  
고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소  
위원회 활동 14시를 11시 반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14시를 삭제하든지 해야 하  
지 않겠습니까?”)

● 의장 고규강

어디에 14시가 있어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오늘 2월 14  
일날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 의장 고규강

오늘 소위원회 활동을 14시로 되어 있  
는데 11시 반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홈페이지 공  
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홈  
페이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직속  
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제187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  
습니다만 교육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이나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자리가 필요하  
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직속  
기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별첨 2)

(끝에 실음)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학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등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자 옥천군 옥천중학구인 동이면 청마리 중가덕리 지역을 옥천중학구와 안내중학구 공동학구로 개정하여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하

▶ 참 조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이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으로 두는 부교육감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부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하고 별표 2 및 별표4의 관할 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3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제1차 본회의]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 김병연,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2)
-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2월 16일 (목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결의문채택의건(이기수 위원 외 6명)

(11시 00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서명범 부교육감과 노재전 교육국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께서는 출장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협의하신 바 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부교육감의 설치 및 권한규정을 신설하였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2조의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 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3을 보면 부교육감이 명시되어 있고, 개정조례 제5조에 부교육감의 설치 및 권한을 신설하면서 제2조에는 부교육감이 누락되어 제2조의 제목 중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2조의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호의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제2호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제3호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의문채택의견

(11시 0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일곱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교육재정특위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이 발의한 교육재정 살리기 촉구를 위한 결의문채택의견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세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잘못 개정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현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선거공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으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05년 16개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 2,000억원에 이르고,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발행액은 1조 6,000억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000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조 5,000억원의 부채가 발생하였다.

2006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발생액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3,500억원, 예산부족으로 약 5,000억원의 인건비와 약 1조 7,000억원의 신설학교 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는 2005년도에 비해 약 1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등 최소한 6조 5,0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원이 법정 정원에 비해 5만명 이상이 부족하며 학급당 학생수, 교실 냉난방 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런 열악한 초·중등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데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조 5,000

억원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부당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려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시 개정하고 현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우리 교육환경이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시 개정하고, 현 정부는 지난 선거 때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공약을 지켜 부도 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라.

1. 정부는 교원의 법정 정원을 즉각 확보하라.

1. 우리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2월 16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교육위원 성

영용·송대현·이기수·이상일·진옥경.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6)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이기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 김병연,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시설과장 안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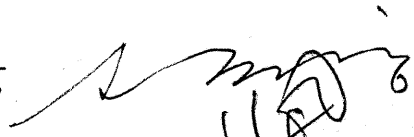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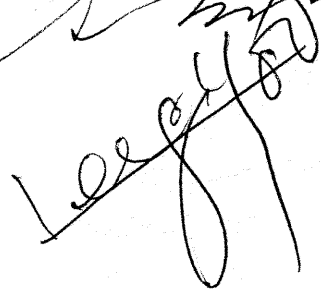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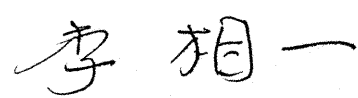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이 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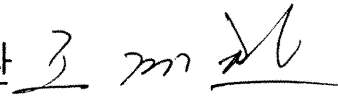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2. 14. ~ 2. 16.(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2월 14일(화) (11:00)</p> <p>14:00</p>	<p><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p> <p>[ 제1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 기 : 2006. 2. 14. ~ 2. 16.(3일간)</li> </ul> </li> <li>2006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li> <li>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 청주시후기 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li> <li>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li> </ol>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심사소위원회</li> </ul>	<p>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2월 15일(수) (10:00)</p>	<p><input type="checkbox"/> 2006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p>	<p>본회의 휴 회</p>
<p>2월 16일(목) (11:00)</p>	<p>[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 청주시후기 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li> <li>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ol> <p><input type="checkbox"/> 폐 회</p>	





(별첨 2)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6. 2. 15.(수)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직속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환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유정현 원장님,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관장님, 학생회관 김용환 관장님,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김준곤 원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갖게 된 것은 지난 1월 10일 제1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

취하였습니다만 교육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로 교육위원님과 직속기관장님 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을 대표하여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환 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다양화되고 높아진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눈높이,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여건, 그리고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자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6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지원의 덕택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내실 있는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6개 직속기관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도약 증진, 고품격 감동 연수, 다양한 교육기회와 문화공간 제공,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북인재 양성 등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은 함께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박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직속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환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고규강

이어서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훈 위원 거수)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직속기관장님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초에 각 기관 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미심쩍은 거, 또 제가 좀더 알고자 하는 거 기관별로 한 두 가지씩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중학생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문제 개발 및 보급, 이렇게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제가 보니까 과학교육연구원에서는 출제 교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진단평가 문제를 갖다가 각급 학교별로 보급을 해서 그 평가문항 문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학교 자체별로다가 그걸 갖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그 본 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충청북도 내에 평가를 한다면은 학교 자체적으로 물론 말기는 것도 좋지만 충청북도 차원에서 활용한 무슨 면은 없는지, 있다면은 연도별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단평가는 저희들 도에서는 도내 전 12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주어서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내용을 중학교 반 편성으로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형성도를 보는 것으로써 이것이 요새도 문제보다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 단위 평가문제를 출제해서 주는 것보다는 학교단위로 해서 좋지 않으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지만, 또 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조금 답이 엇나갈지 몰라도요.

하면은, 거기에 70 한 8% 정도가 각 학교에서 그런 수준 있는 문제를 만들기도 어렵고, 각 학교마다 이런 걸 다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 해서 실시는 각 중학교별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나와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표준 점수를 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상관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표집학교만 해 가지고 표집학교의 경우를 해서 내 학교 학생들 성적표가 이렇게 해서 보는데, 중학교 것은 완전히 그것을 평가문항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은 기본 평가에도 들어갑니다만은 기초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정확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많은 학교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학력을 정착시키는데 그 반 편성 내용으로써.....

● 김남훈 위원

예, 단위 학교별로다가 출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신빙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원 자체별로 평가를 해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서.....

● 김남훈 위원

터치를 안 합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저희들이 전부 설문을 해서 그것을 조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도나 또 변별도, 타당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제가,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 나가 봤는데 우선은 거기서 좀 표준화 도구를 해주니까 학교에서 편하고, 그것을 각 학교별로

다 하는 것보다는.....

● 김남훈 위원

다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참 좋다 하는 이러한 좋은 점으로 부각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학교에서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반 편성 고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초등학교에서.....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원에서, 원 자체별로다가 조사한 내용은 없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 김남훈 위원

그리고 평가과목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다섯 교과 과목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선 학교에서 예·체능에 대한, 이 외의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홀히하는 문제점이.

그런데 구태여 이 다섯 개 과목만 선정해서 출제를 하는 이유는 뭐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영어가 포함됐는데 그러한 정도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생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각에서 과목을 네 과목만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영어기초를 포함해서 다섯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반 편성하는 데만 쓰는 자료라면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기왕 한다면은 기초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점을 기초, 바람직한 방향을 한 두 가지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실시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 김남훈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편집 복제실 운영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에 보편은 자료복제실 운영이라고 해서 CD, DVD, 그 다음에 수업용 VTR자료 복제 보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복제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떻게 학교 부담입니까, 원에서 제공을 해 줍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저희들 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공을 해 줍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 김남훈 위원

그럼 초·중·고별로다가 그 이용실적이 어떤가 그 현황을 얘기를 해 주세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저희들이 자체로 만든 자료를 현재 복제하는 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보급된 자료를, 이것은 학교마다 필요하다든지 또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초·중·고별로 저희들이 기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복제하는데 더 많은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초등학교가 제일 많죠? 활용도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적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편은 맞춤형 연수과정 편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수생의 직위와 경력 및



현장 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과정을 편성하여 과정의 적합성을 실감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것은 참 극히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일정, 초등학교 교감, 교장, 기타 직무연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수내용이 그 연수제목에 부합하는 그러한 연수내용이 아니고 좀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일정강습이다, 초등학교 일정강습이다 하면 일정강습, 또 직무연수다 하면 그 직무연수에 걸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공감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단재 부임을 하면서부터 뭔가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를 개설을 했을 때 그 매력을 느끼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수 요목이라든지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그 연수협의회에서, 저희들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개설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학교에 홍보가 덜 됐는지 어느 교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미달되는 그런 교과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감사합니다.

연수가 교감 직무연수 하시면은 교감 직무에 따른 그런 연수내용이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교감 직무연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연수내용이 많다, 그런 연수 종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이 있다는데 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서 연수제목에 걸맞는 그런 연수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용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유열람실, 종합자료실, 아동주부열람실, 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특수자료실 해서 쪽 기별로다가 나와서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자유

열람실에 보면은 07시부터 22시까지, 그 다음에 11월에서 2월 말은 08시부터 22시 까지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다보면은 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과근무를 해서 시키는 방향도 있지만 더 근무를 초과해서 하는 근무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좀 답변 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도서관장 안용균입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은 저희가 밤 10시까지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의 근무는 전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물론 전 직원이 하지는 않을텐데, 그 한 두 사람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별도의 근무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그런 것은 지급합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학생회관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한글사랑관 운영의 활

성화라는 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완공을 봐서 지금 현재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체험학습 몇 회에 몇 명, 제2회 한글사랑큰잔치 몇 회에 몇 명, 뭐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서 그 행사에 몇 명이 참관을 했다, 참석을 했다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한글사랑관을 우리가 개원한 목적은 이 행사위주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외에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보다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한 학생들은 한 5,8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따로 통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작년에도 17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물론 그 학생위주로다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주가 되는 것을 저도 동감

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우리나라 글인 한글을 홍보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다년간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관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홍보를 해서라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도내 교육가족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가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제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연 인원 2만 5,000명, 뭐 이렇게 해서 쪽 사용한 인원수가 쪽 나왔고, 요새 추세를 보면,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수학여행이라고 할까, 졸업여행이라고 할까, 또는 각 학교의 방학 중 연수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이

수련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가족 외에 여기에 명시한 교육가족 외에 일반인들 사용 인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아마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여기에 명시된 우리 교육가족이 행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없겠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혹여 일반인이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우리 교육가족한테 뒤서, 물론 성수기, 비수기 해서 성수기 때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거기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 뒤에 있는 별관, 학생 그 사용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도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뒤에라도 대여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

간에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아량을 베풀 용의는 없으신지.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뒤에 학생 침실을 금년도부터는 좀 활용을 해서 수요자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맨 마지막에 특색사업에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활동이 이제 금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과 달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별도로 이렇게 채택하신 우리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운영을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뭐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게 없겠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현재는 운영을 해 봐야만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기왕 이런 특색사업을 설정을 하셨으니 까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충북에서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학생교육실적 교육연인원 540명 이렇게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개원을 하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쪽 운영을 해 오시는 과정에서 개원 원년에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끔 운영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각 지역별로다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출되는 요건이 뭔지 좀, 이 학생외국어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착출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착출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은 금번에 몇 명, 몇 명 지정을 해서 인원수를 배정해 주고, 조그만 지역교육청일 때는 한 3,4개 교육청 저희들 원으로 들어오게끔. 청주 같은 데는 한꺼번에 90명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 각 지역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서 입소대상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전 공부를 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선 교육자를 선발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또 다시 공문을 내보내서 적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 원에 보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개는 좀 테스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우수한 학생에 속하는 학생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답변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뤄볼 적에 각 학교에서 한 두 명, 한 두 명 정도 착출되어 오고, 또 더군다나 적당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볼 때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소위 지금 한 두 명 안에 드는

어린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 그러니까 영재 중의 영재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지 기타 우리가 말하는 보통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꿈도 못 꾸것네요.

그래서 이 영재를 제외한, 그러니까 한 두 명 속에 포함된 어린이 외에 보통사람들이 가서 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무슨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약 450명 교육을 시켰지만 앞으로 저희 원에서 한 번 받은 학생들은 다음 기회에 또 오래 후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 어떤 학생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나 도내 연수 기관에서 4박 5일 이상 참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을 우선 뽑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5년에 6기를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몇 기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35기입니다.

● 김남훈 위원

제 얘기는 35기 중 한 30기 정도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시범적으로 5기 정도, 5기 정도면, 1기에 90명입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5기면 450명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통, 보통 어린이, 이런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김남훈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느 학생이든지 골고루 혜택을 빨리 받아야 좋은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애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깊이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연구학교 운영도 보면 시범연구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원에서 선발 방식대로 하면은 이 시골에 생활, 문화공간이 없는 그런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런 데 교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들은 전혀.

그러니까 같은 교육세를 내고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면은 장 그 어떤 상류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만 거기 입소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35기를 운영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5기라고 하면 몇 % 차지합니까. 5기가 안 된다면 단 1기라도 보통 어린이를 착출해서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갖다가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다시 시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런 어린이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도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은 한번 연구를 해서 35기 중에 한 두 기만이라도 한번 실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 거수)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그 직속기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 과학교육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면 영재교실 운영에 언어영재교실이라든지 정보영재교실, 물론 정보 쪽 하든지 하면 이게 과학 쪽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명칭이 교육과학연구원인데 그 과학 쪽의 영재 발굴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을 본 위원은 그래도 중점적으로 해 갖고서 과학영재를 발굴을 해 갖고서 그 영재교육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 장래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요업무에 들지 않은 이유가 지난해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수학 영재교육을 지난 12월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이면서 과학영재를 하는 학교이고, 또 고등

학교 교육방향이 수능위주로 나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20명씩 운영을 했는데 참가율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 특성화 학교이고 거기에 과학영재교육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초·중학교는 각시·군교육청에서 하고 이래서 금년도부터 예산도 그것이 배시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올해는 여기에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물론 과학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교육과학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도 그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외국어교육에서 뭐 영어나 그 외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학생회관 같은 데서도 하고 또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또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영재교육은 그쪽에다가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과학고등학교와 협조해서 과학영재를 더 발굴해 갖고서 좀더 그런 영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 가

지 효과 면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시던 사업 이니까 더욱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갖고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되는 체험교실이라든지 탐구교실 이런 게 상당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고, 그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종례에 했던 그 방법 이상의 방법을 더 연구해서서 그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서 갖고서 이렇게 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단재교육원에서는 이제 대개 선생님들에 대한 연찬 이렇게 되는데 강사 위촉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사위촉은 원장님 혼자 이렇게 보시고 실무진에서 해 오는 결재해 갖고 정합니까, 강사위촉위원회 같은 데서 검증을 한다든지, 또는 강의평가 같은 것을 해 갖고서 강의를 좋은 반응을 못 얻은 강사는 해촉하고 그 이후에 좋은 강사들을 다시

위촉한다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촉하는 겁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유정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요목 선정하고 강사 선정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째 강사를 선정할 때는 담당 연구사가 전국에 우수하다는 강사를 전부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세 사람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거기서 결정된 내용대로 따르자 원장이 뭐 이 사람 써라 저 사람 써라 하는 것도 없었고, 완전히 연구사한테 완전 맡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설문조사, 모니터링 요원들에 의해서 강사의 질이라고 할까 이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지난해 좋지 않게 평가된 그 강사는 매년 빼고 새로운 강사를 자꾸 이렇게 선정을 해서 써보고 좋게 평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쓰고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물론 연구사님이 그 분야에 전공한 분이고 그쪽에 조예가 많다고 하시지만은 그분의 결정을 원장님이 믿고서 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그 커리큘



럼이나 강사선정은 무슨 위원회 같은 걸로 외부인사까지 포함시켜 갖고서 폭넓게 이분들 스크린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작년에도 외부에 위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알차게 하는 것이 협의회에서 선정협의회에서 더 알차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외부에 위촉을 안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선정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협의회입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그러니까 전 연구사, 부장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 단재연수원에 있는 인력을 100% 가동한다는 어떤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은 조금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하고서 그것이 그렇게 좋지 못한 효과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시행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아 저 밖에서도 학계니 여러 부문에 참 권위있는 대학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을 이용해 갖고서 참 빌려서 좀 오픈해 갖고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원장님,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연구사가 추천해서 온 분 그냥 결재하고, 물론 원장님도 판단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열린 생각에서 강사위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한번 더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중앙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지금 매년 그것도 예산심의할 때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은 청주시민을 위해 갖고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에 묶여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주시 쪽과 협의를 하셔 갖고서 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1년에 청주시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중앙도서관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직접 도서관으로 전입된 것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관장님이 시장을 직접 만나든지 해서, 사실 중앙도서관이 여러 가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청주시에 공헌하는도가 상당히 큼니다.

책을 대여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헌도가 큰데 그런 부분을 시장하고 협의하셔 갖고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시의원들과 협의해 갖고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도서관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도서관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는 청주에서 1년에 한 3,4천 정도 도서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시에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직속기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지원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직접 도서관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청주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끊기고, 다만 시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도서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검토해 보고 시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다든지 도서관 운영 위원들은 전부 뭉니까 위촉되어 있어 갖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선정협의회는 도서관 입 할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외부인사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직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도서선정위원회는 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외부인사를 넣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인사는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를 넣어 보니까 서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별 효과가 없어 갖고서. 외부인사 대신에 지금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한테 그 희망하는 도서를 갖다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도서확보율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100% 넘었어요?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지금 저희가 도서확보율을 권수로 보면 지금 현재 100% 돼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외부 도서관과 연계돼 갖고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다운 받아 갖고서 나중에 대금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돼 있죠?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지금 도서관 간에 그 관계는 다 구축돼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에 한글사랑관이 이쪽 땀니까 전에는 기계공고 옆에 그 건물에 있다가 그것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 학생회관장 김용환

아직 안 옮겼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대로 두고서 그럼 직원 관리는 어떻게, 그럼 그것은 학생회관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 학생회관장 김용환

예,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한글사랑관은 종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학생회관 옆에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옮기는 예산 사정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기능직 1명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회관에 담당 연구사가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을 말씀했는데 이제 보면 안전교육 쪽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는 학생 안전교육을 그 계 화재 시 대피요령들을 하는 것을 첨가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겨울철에 건조해 갖고서 화재가 나 갖고서 어린이가 화재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그래 본다면 대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불이 나면 겁이 나니까 침대 밑이든지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소방관들한테 발견되지 않아 갖고서 질식사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그 화재가 낮을 경우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갖고서 오염된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인명피해가 덜 날 수 있도록 같이 앞으로는 안전교육에 꼭 넣어서 이렇게 교육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관 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을 2월 25일날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협의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시범운영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한 4월이 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안전체험관의 내용은 교통안전, 또 생활, 학교생활안전, 화재안전 이렇게 있는데, 그 화재체험을 보면은 거기에 위급상황 신고부터 시작해서 소화기로 불 끄는 체험, 그리고 연기나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체험, 또 위험을 탈피하는 체험,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학생하고 일단 체험관을 오시면은 일단 교육을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이기수 위원

여기 보고는 안 돼 있지만, 여기 그 말씀은 없었죠, 여기 보고사항에, 여기 있습니까?

### ● 학생회관장 김용환

26쪽에 조금 있습니다.

### ● 이기수 위원

화재대피에 대해서.....

### ● 학생회관장 김용환

여기는 자세하게는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에 안전체험학습 실시해서 26페이지 주요사업에 거기 보면은 교통안전, 학교생활안전, 자연재해, 소방안전 등의 체험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 ● 이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 원장님, 그 종합수련원의 문백에 있는 수련원은 이제 뭐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어떤 방법도, 그건 진

천군청하고 관계가 있고 한데, 그 앞에 수질개선은 어떻습니까? 아주 포기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애입니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현재 수질 급수가 2급수입니다, 현재 수질이.

그런데 앞으로 진천군 계획에 2010년까지 1급수로 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 이기수 위원

진천군에서?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 이기수 위원

자주 협의하셔 갖고서 수질을 개선해서 그 문백 야영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음 질의드릴 것은 학생 그 수련프로그램 중에서 효 체험 교육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그게 생활관이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관을 외국

어 교육원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교육과정은 이제 금년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안 하고 계신 거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 이기수 위원

그래서 학생회관에서 하든 종합수련원에서 하든 간에 그 효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고령인구가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14% 노령화 사회로 간다든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노인이 많고 이러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할아버지나 부모에 대한 효 교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담당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한테 효에 대한 교육이 우리 2세대한테 제대로 돼서 애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나 또는 지금이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학생들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효도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없거든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효 교육은 현재 교육청 기획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어교육원이 설립된 지도, 완공된 지도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교육원 신축이나 그 외 교과과정 만드는 거, 강사 위촉, 조직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그동안에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이 보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잉글리시캠프 정도 되는 애긴데 지금 아마 경기도 같은 데를 저는 안 가봤지만은 큰 데는 벌써 잉글리시타운 형태로 돼 있어 갖고서 시추에이션별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체험학습장 숫자로 볼 때는 그쪽에 못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가 작아서 아이들을 적게 모집하는 그것 뿐이고, 저희들도 11개 실이고, 11개 실에 17개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4박 5일 동안에 그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넓은 그런 공간은 없더라도 일단 체

험학습 종류별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큰 교육원들하고 종류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공간은 적지만 거기서 체험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거기서 영어만 하는 거지 제2외국어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것도 제2외국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물론 원장님, 네이티브스피커에 대한 자격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그분들은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1등급짜리는 없고요, 자격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면 선

발규정이 도교육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교사자격증이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자격증이 없을 때는 TESOL자격증, 국제 그 외국어 교습할 수 있는 자격증이, 그리고 교육경력 이런 것들을 주로 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메겨 가지고 저희 원에서는 4등급이 5명이고요, 10명 중에, 그리고 3등급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5등급이고 이렇게 해서 26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돈을 받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뭐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면 틀림없겠지만은 대개 네이티브스피커들 보면 말입니다 서류를 위조해 갖고 와서 위촉하고서 1년 뒤에 발각된다든지 그러는데 그 조회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언어전공자를 사용한다든지 어느 공대출신이 여기 와서 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경우는 군사계통의 전문가가 와 갖고 뭘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언어전공, 영어 전공한 그런 강사를 위촉하고, 또 학력 같은 것도 대학에 편지 내 갖고서 거기서 확인을 반드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서류로 갖춰 들어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것을 전부 검증을 해야 됩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런 공문이 왔어요. 전부 다 심사를 해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토론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했는데 그쪽하고 무슨 연결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아직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요,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영어연수원에서 35기까지 해 갖고 90명씩 한다고 해야 1년에 이제 인원수도 제한적이고, 또 하나 영어라는 게 4박 5일 했다고 다 된다면 영어공부 못할 사람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평생을 해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것은 그 4박 5일 동안 많은 것에 대한 체험도 있겠지만은 첫째 취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취미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기에 영어에 대한 취미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문제 하나 덜 외우고 단어 하나 덜 하고 표현 하나 덜 한다고 해도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핵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4박 5일 아이 들이 학습을 한다고 그래서 회화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우선, 외국어 학습에 우선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또 이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흉당무가 되지 않는 자세, 의젓한 자세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습관 형성, 이런 걸 주로 해서 거기다가 언어능력까지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언어능력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동들한테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고규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용 위원 거수)

성영용 위원님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 및 특색사업에 관해서 종료된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새로이 사업하는 거에 대한 사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A4용지로 해서 한 장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 기관장님은 한 300쪽 되게 해 갖고 왔어요. 아마 그거 하면서 담당자들



은 욕 꽤나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 A4용지 한 장 정도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적으로 우리 사실 각 직속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제가 바라고 싶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에 관한,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인성교육과 또 국가관에 대한 뚜렷한 이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넣어주시면은.....

현재 우리 아이들의 사고라든지 이것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마음을 쓰셔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요, 학생종합수련원에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볼까요?

장애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데 학교폭력을 위한 해양체험 등으로 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은. 여기에 하나 꼭 짚어서 얘기드린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기소유에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해서 부모 또는 선생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

누면서 아이들이 선도되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통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셔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지금 사실 거기에서 선택받는 학생들이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그 운영하고 있는 잉글리시캠프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도 있고 단양도 있는데,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의 고유업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그 영어교육을 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에 있는 잉글리시캠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실적도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다 갖출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면도 굉장히 적게 들고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운영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에 아이들 교육과정의 지금 전부 다 수업내용이라든지 이게 지금 탑재돼 있지 않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각 학교에서

남이 한 거지만은 홈페이지를 열어서 어떻게 거기에서는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래 탑재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초·중등의 그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 관계를 같이 좀 해 주면 굉장히 이차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원에서 작년에 541명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영어영재교육을 실시를 했죠?

올해도 계속 하실 건가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학생교육은 전부 학생외국어교육원 내지는 종합수련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다 넘어갔습니다.

● 성영용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도 그게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넘겨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데서는 진로영재교육부에서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하고 책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령잡아요.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 성영용 위원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그 회초리보다 더 큰 사랑인가 왜 그 책자하고, 2008년도 진학지도에 관한 책자도 이래 만들어 내고 해서 교육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부서 간 또는 직속기관과의 연계를 해서 한쪽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은 기획부서고 각 기관은 집행부서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만 인력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뭐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장님부터.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저희들 지난번 모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상

저희들 사업이 양으로 보면 32개 영역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배시한 쪽으로 보면 18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저희들 자체도 분석을 하고 해서 32개 사업을 거의 살려서 전에 기획을 하고 쪽 내려온 것을 분석할 때 꼭 필요한 일이었지 그것이 뭐 돈이 있다 그래서 하고, 돈이 없단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약속도 모두 했고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런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연구원, 과학관, 정보원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모두 기획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도 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뭐 어렵습니다 말보다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뒤에 계시는 다른 기관장님들도 대동소이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은 의장님이나 같이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짐작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요, 저희 원에 원어민과 한국인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대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숙소만 보더라도 숙소는 원래 건물을 지을 때부터 원어민 숙소를 따로 지었고 한 층을 다 점유하고 있지만은 그 저희들 한국인 선생님들은 연구사 세 분 중에 한 분이 매일 자고요, 선생님은 열 분 중에 두 분이 매일 자거든요. 그래서 매일 3명이 자고 있는데 실은 숙소가 연구사 3명이 한 방을 쓰고, 또 선생님들 매일 자시는 두 분이 한 방을 쓰고, 두 방 가지고 10명이 쓰는 겁니다. 방 2개 가지고 그날 당번이 번갈아서 2명씩 쓰고 있는데 거기다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서 아주 답답할 정도로 골목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방이 호텔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 한국인 방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어떤 골목방 같은 그런 인상이 들고, 이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수업수당 문제 있어서 야간에 저희들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간이야 뭐 봉급에서 해결이 되지만은 야간에 2시간씩 하는 그 수업이

원어민은 1시간에 2만 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특근수당으로 달아서 그 수당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특근수당이라고 하는 게 약간 8,000원 조금 넘는, 1시간에. 그래서 원어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특히 앞으로는 주말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주말과정에 따르는 역시 선생님들의 수업수당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주말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도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 식사비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어떤 대우 차이, 이런 것들이 제 개인 원장으로서의 애로사항도 되지만은 선생님들의 불만 요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라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수련원장 박영하입니다.

그 폭력예방을 위한 수련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접근방법이 도내 전체를 하느냐, 학교별로 우리 수련원을 이용해서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부서인 중등교육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거기에 같이 더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각 지역의 검찰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만 제대로 서서 인적자원과,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 또는 선생님 그것만 되면은 아마 협조가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중등교육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청풍명월 과학축제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청에 과학실업과인가 거기하고 연관된 문제이지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두 번을 보니까 청주 쪽에는

남부 학교들이 충주에는 이제 단양, 제천, 괴산, 음성 학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감님의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오전 오후, 오전 청주, 오후 충주.

그런데 오전은 제가 별로 불편을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충주는 해마다 보니까 11월달 오후 3시에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천, 단양, 음성 먼 데서 와 가지고 1년 내 만든 국화라든지 작품을 전시하는데 돌아볼 시간도 없고, 또 밖에서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1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걸, 바람은 불고 춥고 구경도 못해. 왜 그렇게 촉박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지. 이를 잡아서 하루는 청주 축제 하고, 그 다음 날 충주 축제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도 어느 과장님한테 그 조금 시정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돼요.

우리가 보면은 학교수만 해도 15개, 16개 하는데, 참 학생들이 좋은 작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와서 관람하고 싶은데 또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개막 테이프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떨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

원 위주의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제일 큰 축제인데 학생위주로 한번, 또 학부모 위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청풍명원 과학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로 내놓았는데요 죄송한데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학실업교육과에서 하는 실업고등학교 직업축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실업교육과에서 청주, 충주를 나눠서 청주는 뭐 저희들 장소는 빌려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장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럼 그쪽에 축구를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진로교육을 하고 있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학부모, 교사, 또 학생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해서 간 진로야 자기들이 책임질 문제지만 아직 학교에서 인류대학 몇 명을 보내느냐 하는 거에 집착을 해 가지고 본인이 별로 희망하지 않는 대학을 보내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보내느냐가 인문계 학교의 성적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금년에도 지방지에 뭐 청주에 모 고등학교가 20 몇 명 최고고 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학부모가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에 나왔는데 아이가 취업이 안돼서 충주에 그 이름도 별로 없는 정보 음성 무슨 정보대학이 있어요, 거기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진로지도를 잘못 했으면 4년제 나오고 취업이 안되니까 다시 전문대학 괜찮은 과에 취업될 데를 찾아서 가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부모 진로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진로지도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 또 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캐치플레이드를 하고 저희들이 진로지도부에서 진로교육을 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대상은 초·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그 교육하는 분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담 쪽은 상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진로교육 기초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대학생, 고등학생들의 진로 관계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희들 작년에도 고등학교에 나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편적으로 저희들이야 한 두 시간 가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 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 자신도 그런 것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회의감도 느끼고 이것이 확실히 돼야만 행복한 학교가 되고 여러 가지 부형이 만족하는 교육이 되는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더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진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여기 보니까 진로상담 담당자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명예를 위해서 학생들을 강요하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해 주셔야 돼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에

● **이상일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성 및 생활지도 능력 향상에 대한 지도를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초임교사가 발령되면 복무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받죠. 교육도 받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재교육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임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1급 정교사 뭐 자격연수 이렇게 받는데, 하여튼 여기서 교사의 인성, 품성 함양을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교육,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에 가보면은 부적격 교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을 자주 떠들면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그런 재교육 상황에

서 구체적인 실례라도 들어가면서 아직도 음주운전, 뒤통수행, 또 학생들 폭력 문제, 이렇게 소소한 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거기에 좀더 중점을 두셨으면.

제가 작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이색적인 행사를 하시더라구요. 교대를 처음 졸업하고 그 학교에 부임한 여섯 분 교사를 환영식을 해 주는데, 당신네들이 오늘부터 교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잘 키워달라고 하는, 말하자면 성인들 성인식 뭐 관례 씌우는 거마냥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꽃다발도 주고, 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권면의 말씀 같은 것도 해서 정말 첫발을 딛는 선생님들이 품성을 길러서 잘해 주도록 학부모 쪽 와서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첫 출발을 한 사람들이 좋은 교직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인성교육에 힘써 줬으면 하는데, 원장님, 그거에 대한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저희들은 매 과정마다 공직자의 자세라는 정책과제를 넣어서 매 과제마다 실시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수생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지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매 과정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고맙습니다.

학생회관 관장님께.

제가 이게 여기 해당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아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체험 및 한글교육을 한다는 보고를 하신 바가 있죠?

● 학생회관장 김용환

예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주한 외국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글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한 외국인, 특히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한국에 온 농촌의 엄마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말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잘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는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글사랑관에서는요 방

문하는 외국인이나 또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또 아니면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우리 소식지를 이용해서 우리 한글을 한글에 대한 제정원리나 여러 가지 한글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이, 특히 아시아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아들 딸을 낳고 사는 사람들, 또 그분들. 그분들 교육을 위해서-코시안이라고 하더라구요-그 코시안들을 위한 우리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책정되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학생회관 한글사랑관에서 그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하여튼 그 계획을 하신다니 참 반가운 얘기고,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애들 지도도 해 줘야 되고, 그 얼마 전에 미국 미식축구에서 이름을 날렸던 워즈 선수인가 그 사람도 어머니가 미국 가 가지고 말도 못하고 생활력도 없으니까 애도 뺏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특색 있는 교육을 좀 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한글



보급도 되고 외국 엄마들에 대한 배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 학생회관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어 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궁금하던 것을 조금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조직을 보면은 파견교사가 열 분이고, 원어민 교사가 열 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어민 교사와 이 파견 교사 간에 하모니가 잘 되는지 하는 문제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벌써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네요.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또 가치관의 차이 같은 게 상충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예, 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외국인들이 인성이 착한 사람들이 왔다고 저는 결론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인성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기 본국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

람들이 해외에 가서 돈이라도 벌어보겠다 해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문화를 극복하고자 하고 한국문화에 동의하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티칭을 하면서 한국인과 네이티브스피커 간의 코티칭을 하는 순간에 약간의 주도권 문제라든지 또는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수업은 한국인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고, 그 외 학생들한테 영어발음이라든지 대화내용을 들려줄 때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도록 해서 영어연습에 확실히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결국 그 교사가 애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학생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정열과 사명감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창기니까 원장님께서 잘 하모니가 돼서 우리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교사들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애써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원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평소에 생각했던 한 두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했던 교육과학연구원장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국민들이 참 기대했던 실망감도 있었고, 또 그 보도자체를 그대로 인정 한다 안 한다 정확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조작이라는 것이 공연하게 떠드는 데서 우리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거기에는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직하게 길러서 정직하게 발표할 수 있는, 특히 이것이 과학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생물을 전공했어요. 과학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탐구했던 연구했던 진솔하게 밝히고 거기에서 얻은 것을 국가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것은 ABC의 기초 A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킴을 비춰봐서 타산지석으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과학전람회라는 것을 하고 아까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상서부터 특상, 18개의 상을 탔다. 지금까지 참 훌륭한 일을 해 내셨고 크게 업적을 세웠습니다.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황우석 박사가 한 큰 연구가 아니라 처음 기초서부터 우리가 과학작품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거기에 보고서를 쓰고 하는데 사실을 토대로 해서 과학교사 두 분이 심사를, 두 분인지 몇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심사기준에는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과학작품으로 연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쯤 되새겨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요, 또 하나 과학교육은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이지만 과학은 국민의 과학교육의 생활화와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생활화하고, 그 과학에 대한 정보를 우리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알리는 전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전시기능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

나 황우석 박사와 관련지어서, 도대체 많은 신문에는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게 무엇인가, 저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저게 왜 난자 제공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윤리적인 측면이지만 과학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그런 것쯤은 한 작품 전시를, 게시물을 과학관에 전시해서 청주시민이나 기타 시민들이 과학관을 둘러보고, “아, 줄기세포가 저거구나, 체세포” 좀 쉽게 적어줘야 될 거예요. 학술적으로 맨날 라디오에 나오는 정도로 적으면 잘 모르실게요.

체세포의 줄기 저것이 문제구나, 왜 저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마 최소한도 그런 작품이 하나 정도는 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뭐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연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연구원에다가.

정보화에서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컴퓨터 연수도 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에, 그렇습니다.

#### ● 송대현 위원

요즘 많이 생각하시는 컴퓨터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것으로 됐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반대로 악영향, 컴퓨터 중독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자살까지도 이르게 하고 도 거기에 몰두하면 24시간 제쳐놓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콜중독자를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알콜, 술을 끊기 위해서. 술기가 떨어질만하면 그저 몇 병이고 먹는 알콜중독자들 생리는 포함니다. 피 속에 그게 떨어지면.....

컴퓨터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색프로그램에서 이 다음에 갈 적에는 그 교과목 속에 게임중독 치료 강의를 꼭 좀 넣으세요. 선생님들이 알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 컴퓨터 중독된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컴퓨터는 보이는 어떠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려 둡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단재원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자도 단재 원장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제일 큰 일은. 많은 잡다한 일이 있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그것을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모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생명체입니다.

하나 프로그램 잘 짜놓고 필요한 거 그것을 아주 그냥 선생님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훌륭한 강의를 한다, 이 두 요체가 생명인데 아까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든가, 좋은 강사를 모신다고 하는 부분. 지금도 많은 평가를 하고 피드백도 해 보고 애를 쓰십니다만은 저도 이기수 위원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연구사의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서 이 분야에는 어떤 선생님을 모셔야 가장 적절하게 연수생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강사가.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의심이라기보다는 몰라서, 원격연수를 하더라구요, 원격연수. 여기도 원격연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원격연수를 하는데 평가, 아까 제가 모형도 봤습니다만은 두 가지 과제평가도 체크를 하고 또 형성평가를 해서 두 가지 다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한다고 그래요. 원격연수를 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과제도 하고

이제 또 형성평가도 하는데 일단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검증하고 저쪽 원격, 집에서 서로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되고 확인이 되는 건데 나름대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저쪽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연수 자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평가만은 한번 쯤 불러서 하루쯤, 하루든지 4시간이든지, 평가 2시간이면 끝날게요. 그 부분은 원격연수로 했던 부분을 얼마나 당신들이 이해를 했는가 하는, 좀 부르는 게 어렵가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마지막 수료식 하는 날은 불러서 시현을 보고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 ● 송대헌 위원

아, 그래요?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 ● 송대헌 위원

그 모형에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없고 그냥 과제평가하고 또 그 옆에 형성평가로 돼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 부르죠?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 ● 송대헌 위원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점수라는 것은 민감합니다.

저도 시험 보면 한 점수라도 더 맞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 사실 제가 원장할 때 그 이름을 바꾼 건데, 단재연수원을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유독히 충청북도만이,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교사연수도 하고 학생연수, 다른 시·도에는 교사연수원과 학생교육원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학생교육원이 없어요. 없어서 그 뒤에 기능을 합쳐야 된다 해서 그럼 그 명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쪽은 연수원, 단재연수원, 연수라는 말을 썼고 학생교육은 학생을 교육하는 단재교육원을 픽서를 한 부분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어요. 그런데 학생교육연수원에 하는 것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학생교육이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종합수련원에도 하고, 학생회관도 하고, 중앙도서관에도 하고, 참 다 합니다. 외국어연수원에도 하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학생대상 연수는 여기 보니까 지난해는 영어도 하고, 영어캠프도 하고 치코대학 갖다 온 사람도 있고 영어 쪽을

많이 했는데, 그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이에요. 아까 우주애기도 나왔지만은 그 애들의 가치관 교육을 다른 데서는 종합수련원 같은 데서는 극기훈련이나 인성교육에 체력으로 하는 교육이고,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 나가는 가치관 교육을 학생교육원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다행히 없습니다, 학생교육원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는, 야, 교원들이 하는 것이 90이고, 95쯤 된다고 할까요, 학생을 생각하는 것은 5% 정도도 채 안되는데 조금 바란스를, 원장님이시니까 계획의, 방향의 키를 잡았잖아요. 원장님이 앞으로 학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관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에 임해수련원이 생기면서 학생교육은 간부학생이고 일반학생이고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 ● 송대현 위원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이따가 끝에 말미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데 기능의 조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이제 다 넘어가서 선생님쪽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를 제 기능조정을, 거기 뿐만이아닙니다. 다른 것도 곁들여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 중에서 선생님만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선생님하고 일반 행정직만 하고 있습니다.

### ● 송대헌 위원

행정직만 하고 학생 관계는 학생종합수련원.....

###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또 외국어교육원.

### ● 송대헌 위원

그거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재조정할 기능의 재 분배라는 것을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멘트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말씀, 독서의 생활화 아주 중요하죠.

청주 요즘 평생학습도시고 하니까, 또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지난해 전시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아주 사업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욕구들을 보니까, 지난해 축

제할 때 욕구들을 보니까 평생학습 측면에서 옛날처럼 책만 많이 구입해서 읽는 도서관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성인교육 프로그램 쪽에서 아주 다양한 교육을 다 수용을 못 하더라구요,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러이러한 주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확대해 주는 방안을 좀, 예를 들면 민화 쪽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 하던 걸, 뭐 전 원장님이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올해 많이 확대가 됩니까?

###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도서관장 안용균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 송대헌 위원

글쎄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작품전시회도 훌륭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장님.

학생회관장님 요새 신나죠.

옛날에는 조그마한 거 초라했던 거에 수영장이 생기고, 옆에 한글사랑관이 생기고 뭐 살림살이가 막 늘어나서 관장님 어깨가 으쓱하게 됐습니다.

살림살이가 엄청 커졌어요. 수영장을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성황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 과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미리 얘기를 드리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자꾸 예산 투입해서 언젠가는 곧 오픈을 하게 되겠죠. 바이오교육문화에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주요 하는 일들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바이오라는 말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은 언뜻 생각하면 바이오를 가르치는 교육문화회관 같은 어감이 들어서, 사실은 바이오 하고 가운데 점 찍고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바이오교육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바이오를 교육하는 문화회관 같은데 바이오 하고 가운데 점을 찍어줘야 도 예산은 바이오 쪽의 교육도 하고,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으로도 작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 교양증진과 정서함양, 특별활동을 통한 소질계발, 특기신장, 지식정보제공, 사이버교수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가치 제공,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쾌적한 복지증진, 이런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 하는 역할이. 그러면 그때 가서 물론 하겠지만은 우리는 1년이나 2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직속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금 학생회 갔더니 내가 이름이 바뀔 때의 '교육'자를 왜 넣었느냐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학생은 이리로 갔다고 그래요, 학생종합수련원으로 갔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도 또 중첩이 되어 있고, 컴퓨터도 사방에 중첩이 되어 있고, 물론 많이 할수록 좋으나 역할과 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좀 차별화 있는 조정의 문제가 저는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장기계획을 좀 원장님, 학생회관장님이 앞으로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의 역할관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진로로 뻗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장기,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회관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회관의 기능과 다시 신설될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의 기능이 저희들 생각으로도 아마 중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기능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문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 송대현 위원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 시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코 앞에 닥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2년, 3년 중장기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관장님이, 우리 회관에 있는 학생회관의 진로가 운명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게 벌써 부닥쳤잖아요. 그리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관장님이 앞으로 우리 진로문제를 생각하자고 교육감님이나 기타 관계 부서하고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촉구드린 거고, 지금 당장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어떠한 기능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안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 학생회관장 김용환

잘 알겠습니다.

### ● 송대현 위원

우리 종합수련원장님, 진천, 나는 늘 진천 시설 문제 제기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전에 돌아가신 김천호 교육감한테 그 말씀을, 장기적으로 저 진천문화시설은 단독직업적으로 말하면 저 외국어교육원쪽으로 다 주고 임해수련원 쪽만, 보령만 잘해 보면 어떻겠냐, 장차 그렇게 갈 겁니다, 이런 말씀도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자꾸 야영장의 기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모집단계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학교의 반응도 안 되는데 자꾸 숫자는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은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그런 쪽의 계획, 중장기 계획, 그것도 아까 학생회관장님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보령 시설에 보편은 직원들이, 저도 여러 번 신세를 쳐 봤습니다만은 거기가 좀 멀어요. 멀고, 우리 충북 내에서는 차라도 왔다 갔다, 정말로 거기는 숙소를 잡고 자야 되고 하는 형편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자들 모으면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좀 기피할 것 같아요, 임해수련원까지 가서 근무하는 건.



가급적이면 이쪽 가까이 근무하고 싶지 거기까지 가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근무하고.....

거기 근무자에 가산점제가 있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예, 지금 현재 파견교사는 있고요, 일반직은 없습니다.

● 송대헌 위원

일반직도 줘야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는 거기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 송대헌 위원

거기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토요일날 나와 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또 일요일날 또 가야 되고.

물론 다른 데, 충북 내에서도 단양이나 먼 곳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또 도가 바뀌고 멀더라고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자꾸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외국어연수원장님, 새 살림 차려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동감 이에요.

거기 지난해 보니까 540명, 올해는 30 몇 기 해서 인원이 늘어납니다만은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엄청 해요. TV 보고 나서, 야, 충북에 저게 생겨 가지고 영어 원어민하고 저렇게 되는 거 희망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저 잘 하는 애들 몇 사람에, 뭐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남의 것으로 되는 이 부분은 벌써 출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문제는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는 대단해요. 돈을 내서라도 하라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을 내서 원어민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감님이 할 일이에요. 큰 학교에서는 원어민 배치해 주는 거. 시대의 흐름인걸요 뭐.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서 원어민 한 학교에 다 넣어주는 거, 이게 근본 해결입니다.

다만 어떤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럼 촌 학교, 또 학생수가 작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위해서 거기서는 이게 필요하죠. 소규모 학교, 그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다 불러다가 거기서, 거기 뭐 다 원어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글로벌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산 투자부터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두 학교에 걸쳐서 큰 학교에, 청주 시내 같으면 한 학교에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 투자를 해야 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못 주니까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소외되는 학생, 어려운 학생들을.....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나도 그 혁신이라는 말을, 지난해서부터 혁신, 변화와 혁신이라는 요즘 다 전제가 돼 있거든요. 변화와 혁신, 별로 감이 딱 오지를 않아요. 뭐가 변화하고 혁신인가.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좀 미진한 것은 더 보완하고 해서 지금 옛날에 관습적으로 해 오던 생각을 바꿔서, 머리를 바꿔가지고 혁신, 그 새로운 생각으로 교육을

접근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집행청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혁신에 그 시·군교육청에다 두 명씩 사람을 넣잖아요. 혁신팀이 생기고, 교육청마다 직원 둘이 혁신팀으로 가고말여. 이렇게 예산과 많은 인력과 이래서 혁신팀에 본청에 그 계획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구요. 혁신과제 발굴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과제 발굴. 그리고 1교 1혁신 과제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가장 고질적인, 바꿔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나 선정해서 고쳐나가는 거 그 뜻이 있겠다. 여기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 같아요. 우리 직속 1기관 1혁신 과제 선정, 우리 과학연수원에서 가장 어렵고 고질적인 부분이 뭐냐. 우리 이거 하나 고쳐보자, 이게 혁신과제가 아니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북교육청이 평가받는 해이고, 평가받는데 먼저 사람을 짚아보려고 자꾸 질문했더니 관리국장님 답변이 1,200만, 1억 얼마라든가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대요, 혁신에. 지금 액수는 잘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람을 안 집어넣고 하면 점수를 못 따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속기관도 평가를 받을 적에 일조를 하려면 우리 기관에 혁신과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또 교육에 도움이 될테죠. 잘못된 거 제할 부분 하나 고쳐내는 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시작)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보고하시느라고 또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내부적인 어떤 뭐 운영이나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지만은 보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의 어떤 중저, 경험 이런 것들을 모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거기에 간략하게 그저 첨부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서

에 항마다 전부 혁신사항을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도약하시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쨌든 업무보고 계획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반드시 혁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품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평가제도, 또 반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집에 관련해서 제가 도교육청 업무 보고를 받고서도 제가 간략하게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한글교육관을 지금 만들고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가 한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표지도 그렇고 또 큰 제목은 이렇게 한문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혁신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입니다.

저희들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칭찬을

해 주셨고 이런 사항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한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희는 이제 4년 내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바뀌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내부에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단재교육원하고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전부 한글로 하신 셈 이시고,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 수련원은 또 역시 일부 한문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한문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저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한문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말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글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뒤에 단아한 우리말로 프랭카드를 써 붙였을 때, 아, 이것이 우리의 공감대다, 이런 것을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썬요 일일이 다 말

씀을 드리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년의 사업들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반복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또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기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떤 뭐랄까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전광판에 이제 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육은 그런 그 학교나 혹은 교육기관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들을 안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어요.

사회를 좀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사회와의 어떤 교류, 특히 시민단체, NGO단체들과의 어떤 교류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그룹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라든지 이런 그룹들의 어떤 전문지식들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 중에 NGO 역할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의 교육적인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영역이 조금 다르게 이제까지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공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일반 사치단체나 이런 데 비해서 교육계가 뒤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체장님들께서 일단 마인드를 좀 여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일단 만나시고 그런 관계자 분들을 만나셔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접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들은 시설이 여러 가지가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뭐 빔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구하기 어려울 때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을 빌려서 정말 분자생물학 하시는 선생님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제공을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신다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래서 관련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강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시는 이런 형태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제안 사항으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교육과학연구원장 박상환

예, 고려하겠습니다.

###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시설의 유지 보완 수리 개선 교체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도 하시고 굉장히 과학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 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뭐 한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쩌다 한번씩 가볼 수 있는 공간에서 늘 똑같은 거보다는 조금 더 몇 년 단위라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넣으시고 홍보도 우리 새로워졌다 하는 것들을 또 널리 홍보하신다면은 더 지속적인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진로상담에 관련한 역할들도 하시는데요, 결국 이것들은 교육에 대한 지표나 가치관을 새로이 세우고 어른 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다고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해서 반드시 그것들이 지금 아까 황우석 박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일정 정도 기여도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서.....

소박하지만은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그,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제 기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진로 상담을 하실 때 어떤 교육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실 뚜렷한 방향제시를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좀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이 있는데 이제 감사나 또 여러 가지 직속기관 보고를 통해서도 이제 했지만은 좀 부수적인 부분으로써 보충이 안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요 얼마 전에 자료관을 새로 여시고 저도가 보면서 확실히 그런 자료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전부 연수를 받으러 오셨을 때 거기를 한번씩 둘러보시는 것이 나름대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여기 자료전시관도 그렇고 학생회관의 교육박물관도 그렇고, 우리가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귀에 꽂고 들을 수 있는 안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도 가보면 좋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요원이 글썽요 부족하시겠지요, 그 부족하시다면 자원봉사자 형태를 그런 쪽에도 조금 배치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오시는 그 시간 틈틈이라도 조금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하시면 일일이 시끄럽게 옆에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덧붙인다든가 아니면 간략한 설명이라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시설에서도 약간 많은 분들이 머리를 부딪히는 그 유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유념하

셔서 조금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불편함이 있으신지 한번 보시고 좀 시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결국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이제 연수가 주된 저기가 되는데, 아까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강사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 7만원, 뭐 초과수당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유능한 강사 확보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단재교육연수원 유정현입니다.

유능한 강사라는 것이 시간당 300만원 달라는 강사도 있고, 뭐 150만원 달라는 강사도 있고. 그래 지금 A급 강사라고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과정에 한 분 정도 이렇게 모시는 이런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강사를 모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른 연수원들과의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

로 추천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훌륭한 강사를 저렴한 가격에 모시려고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씩 요구하는 분은 오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명감이나 혹은 그것의 의의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실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설득도 하시고 취지나 이런 것들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본래의 어떤 취지와 다른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강좌를 개최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여러 번의 워크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분 오셔서 저희들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미리, 그런 것들이 어떤 내실을 기하는 방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연구사 한 분이 섭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으시리라 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원장님께서 가급적 많은 지역의 인력풀들을 확보하시고 또 만나시기도 하시면서 그 강좌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교류 위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사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써놓으면은 그 원망은 저희 연수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증된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직무교육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양성평등 교육들도 그 중에 들어 있는데, 장애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신규교사들 같은 경우에.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이번에는 30시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정책과제로 해서 그런 게 다 있는데 전부 다 그것만 넣으면 60시간에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정책과제는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의 뭐랄까 깨끗한 도화지 같은 마음에다가 꼭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양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장애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기관에 장애교육이나 혹은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교육계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공조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부라도 그것 좀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편성하셔서라도 이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이번에 특수교육은 넣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그런데 직속기관이라는 이름을요 그거 굉장히 수직적인 뉘앙스를 갖지 않습니까? 직속이라는 말은요, 교육청 직속.

어쨌든 예산을 배분 받고 또 여러 가지들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지만은 저는 교육청이 못하는 기능들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외연으로써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직속기관이라는 이름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좀 쓸 수 있겠지만은 외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이름들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도서관의 기능 중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축제도 하시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취미나 직업교육 외에 정말로 사회교육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에 관련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혁신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구상하시고, 당장 올해 업무보고 하셨으니 추후에라도 이런 방향으로 시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회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많이 기관을 수반하고 계십니다.

사랑관이라든지 수영장, 안전체험관, 또 교육박물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창

기시고 운영하시는데.

나름대로 다 원장님이 힘드시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안전과 관련된 수영장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인데, 그렇다 해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결국 이제 그런 교육박물관에 대한 보고에서 교육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교육박물관은 이제 예전에 어떻게 지냈다 하는 사진이라든지 물건들을 전시하고 또 조금 나아가서는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일시적인 어떤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공간도 좋겠지만은 좀더 우리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지금 타 교육박물관 제가 서원대학교에 교육박물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관식에 가봤을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교과서를 전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교육을 했다, 또 항일정신은 어떤 식으로 키웠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가지고 안내를 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바꾸고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골동품 창고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과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 팜플렛으로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시설들, 학생회관도 그렇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자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늘 제가 질문을 하고 예전부터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여러분들 계획서에 보면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는 말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서비스현장의 이행도가 우리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임의로 그 중앙기관에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 뭐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그것이 불만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행정서비스 현장 만족도 불만이행 이유 해 가지고 문 화상품권 얼마를 준다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에서 사실은 그것들이 외부로 나가면 부끄러운 부분이 되지만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불만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한 사람들의 불만사항들, 혁신사항이 뭐 별 거겠습니까. 자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있을 때 그것의 어떤 혁신의 문제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불만사항들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혁신의 어떤 과제들을 찾으시고 해결방향을 찾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원장님들께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는요 아까 여러 애로

사항들과 여러 우려사항들도 있지만은, 그래요, 저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 많이 받고, 또 부모들이 또 훌륭한 가정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월등한 어떤 성취를 나타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제 하실 때 선정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특화하시는 것도 조금,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프로그램 자체를 학생들의 어떤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하게 개발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방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냥 단계별로 잘하는 아이들 순서대로 언제까지 하다 누구는 그냥 6년 초등 학교 지나든지 그래서 겨우 한번 하고 나가든지 못하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보다는 그래도 공평한 어떤 운영이 그래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은 결국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그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감사합니다.

● 진옥경 위원

요컨대 같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되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원의 운영을 크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말씀들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외부인의 그런 것들, 지역의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관장님들 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천공항에 1년 동안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직원이 40만명이라고 합니다. 직원만, 외국을 드나드는 직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삼성전자 하면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거진 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이렇게 컸는가 하는 것을 다른 나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들이 삼성의 브레인들을 불러서 그걸 묻는답니다. 교육을 연수시키고.....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수원을 통해서 삼성전자 연수원을 통해서 40만명 이상 되는 직원을 거기서 정신적인, 또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사고의 전환을 거기서 전부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국가도 삼성전자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1만 7,000명 선생님들, 30만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6개의 직속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직속기관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을 잘 교육을 시켰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사고의 전환, 이런 것도 가져올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 연수원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하시킬 수 있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상대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직능별로 교장이거나 교감이나 일반직이나 교사나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불러서 이제 단재교육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이런 것이 있겠는데,

보면은 지도자와 관리자가 이게 틀립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CEO,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관리자는 머물다, 현상체제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6개 기관은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은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육성, 또는 양성해 주는 것이 여기 6개의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봤을 적에, 개혁이니 지금 혁신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6개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삼성이 하듯이, 10년 내지 20년 후에 글로벌 시대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쓴 책을 제가 주로 많이 읽어보는데 그것을 보면은 90%, 90%가 해외에 전부 공장을 차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고용력과 부가, 부가가치, 인건비 비싸지, 노동자와의 관계가 안되지, 정부와 정치 행태는 일반 기업보다도 더 낙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는 망해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것이 미래를 보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우리 6개 기관에서 앞으로의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말씀드리면은 우리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뭐냐, 자기 주도적으로 선생님들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제대로 했을 적에 선생님들이 일선에 가서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개 기관에 오고 싶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고 싶다.

누구 한 사람 배우고 가면은 삼성전자 연구원에는 서로 오려고 모든 단체가 오려고 한답니다.

선생님들도 미어지게 오고 싶어하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음 다음으로 연기하는, 또 우리 수련원, 학생회관, 도서관 서로 오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수요자들에, 수요자들에 맞는 수요자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검사들하고 판사들하고 있는데 몇 번 만났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생각

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보내는가 했더니 벌써 그분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내 자녀는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요.

왜, 글로벌 시대는 지금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수익이 높고 의사가 높지만은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를 많이 알아서 외국에 유명한 기업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 적에 엄청난 부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직업을 가졌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좌우지간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시키다보니까 과외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원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물론 가치관도 중요하고, 인간성도 중요하고, 그것은 뭐 아주 기본이 그러니까 밑바탕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도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육성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저보 다도 원장님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고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 충북교육이 타 시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보다도 앞서가는 이러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사, 강사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으로 우리 교육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장 강습이나 교감 강습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가서 할 얘기가 많아요.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 이거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자치 이게 어떻게 될지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이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문제, 지금 김진표 부총리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아까 우리 성영용 위원님이 교육여건, 여러 기관에 환경개선을 위한 뭐 요구해 보라고 해도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뭐 와 보면 돈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원을 못해 주면서 자꾸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감을 져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

까.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응에 우리는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좀 무엇인가 충청북도 교육 전체를 6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우리 충북교육이 그래도 미래를 밝게 해 주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좌우지간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가시더라도 여기는 말씀을 못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은 시급한 사항이므로 이런 것 좀 해결해 주는데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6개 직속기관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이런 거 위원님들 있으시나, 없으시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장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종료)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과학연구원 박상환,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정현,  
중앙도서관장 안용균,                      학생회관장 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영하,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준곤





(별첨 3)

의안번호	제/##~/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2월 ㄴ일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의안 번호	제188호
----------	-------

제출연월일 : 2006. 2. ㄴ.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사유

○ 현재 옥천군 옥천중학구(옥천중·옥천여중)인 동이면 청마리(가덕리) 지역을 옥천중학구(옥천중·옥천여중)와 안내중학구(안내중) 공동학구로 개정하여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옥천군 옥천중학구(옥천중·옥천여중)인 동이면 청마리(가덕리) 지역을 옥천중학구(옥천중·옥천여중)와 안내중학구(안내중)의 공동학구로 개정

## □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 □ 고시 개정안 : 덧붙임

## □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제1항 <별표1>의 가목 중 옥천중학구와 안내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가. 학교군 및 중학구별 일람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옥천군	옥천중학구	옥 천 중 옥천여중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가덕리,마티리 (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조령리, 세산리, 적하리, 금암리, 평산리	청마리(가덕리) : 안내중학구와 공동학구  조천리, 묘금리 (용동), 양저리 : 용문중학구와 공동학구  삼남리 : 청산중 학구와 공동학 구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 삼남리		
	안내중학구	안내중	옥천군 안내면	용춘리, 월외리, 방하목리, 도율리, 서대리, 동 대리, 도이리, 정방리, 인포리, 현리, 장계리	청마리(가덕리) : 안내중학구와 공동학구
			동이면	청마리(가덕리, 마티리 갈마골)	
			안남면	전지역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늘티), 은운리(진주골, 지장골, 지경말)	
			수한면	노성리	

※ ( )은 법정리동, 자연부락 명칭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고시는 충청북도의 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추천방법과 청주시 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b> ① 충청북도의 중학교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1과 같다. ② 청주시 후기고등학교의 학교군은 단일학교군으로 한다.</p> <p><b>제3조(지원 및 배정)</b> ① 중학교학교군내의 추천방법은 지역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별표2의 중학교학교군내 중학교에 입학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추천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교육장이 매년 중학교 진학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p> <p><b>제4조(학교군내 배정의 예외)</b>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통학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인근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고시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p> <p>(생략)</p>	<p><b>제1조(목적)</b> (현행과 같음)</p> <p><b>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b> (현행과 같음)</p> <p><b>제3조(지원 및 배정)</b> (현행과 같음)</p> <p><b>제4조(학교군내 배정의 예외)</b>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고시는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 (별지와 같음)</p>

# 신 · 구 대 조 표

현				경				비고	
시군별	학교군	중학교명	지역명	시군별	학교군	중학교명	지역명		
유천군	유천중학교	유천중 유천여중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적하리, 금암리, 평산리	유천군	유천중학교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가덕리, 마티리(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조령리, 세산리, 적하리, 금암리, 평산리	청마리(가덕리): 안내중학교와 공동학구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모금리(용동), 양저리, 삼남리	유천군	유천중학교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모금리(용동), 양저리, 삼남리	
안내중학교	안내중학교	안내중	유천군 안내면	용춘리, 월외리, 방허목리, 도율리, 서대리, 동대리, 도이리, 정방리, 인포리, 현리, 장계리	안내중학교	안내중학교	유천군 안내면	용춘리, 월외리, 방허목리, 도율리, 서대리, 동대리, 도이리, 정방리, 인포리, 현리, 장계리	삼남리: 청신중학교와 공동학구
			동이면	청마리(갈마골)	안내중학교	안내중학교	동이면	청마리(가덕리, 마티리, 갈마골)	
			안남면	전지역			안남면	전지역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늘티), 은운리(진주골, 지장골, 지경말)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늘티), 은운리(진주골, 지장골, 지경말)	
			수한면	노성리			수한면	노성리	

# 교육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제~제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6년 2월 2일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2
----------	---------

제출연월일 : 2006. 2.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고, 2006. 1. 12.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나.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함(안 별표2, 별표4)

## □ 개정조례안 : 붙임

##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 괴산중평교육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조 (국의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관 할 교 육 청</th> <th style="width: 33%;">도서관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lt;생 략&gt;</td> </tr>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lt;생 략&gt;</td> </tr> </tbody> </table> <p>[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관 할 교 육 청</th> <th style="width: 33%;">야영장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교육청</td> <td>청 천 학생야영장</td> <td>&lt;생 략&gt;</td> </tr> </tbody> </table>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도서관	<생 략>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증평도서관	<생 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청 천 학생야영장	<생 략>	<p>제5조(부교육감) ①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p> <p>②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5조의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관 할 교 육 청</th> <th style="width: 33%;">도서관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td> <td>괴산도서관</td> <td>&lt;생 략&gt;</td> </tr> <tr> <td>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td> <td>증평도서관</td> <td>&lt;생 략&gt;</td> </tr> </tbody> </table> <p>[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관 할 교 육 청</th> <th style="width: 33%;">야영장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td> <td>청 천 학생야영장</td> <td>&lt;생 략&gt;</td> </tr> </tbody> </table>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 략>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 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청 천 학생야영장	<생 략>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괴산도서관	<생 략>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증평도서관	<생 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청 천 학생야영장	<생 략>																													
관 할 교 육 청	도서관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괴산도서관	<생 략>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증평도서관	<생 략>																													
관 할 교 육 청	야영장명	위 치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청 천 학생야영장	<생 략>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5 법률 제7340호)

제33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5>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5>

⑤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제33조의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①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별첨 5)

제188회 임시회

#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2.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2월 14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2월 14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고, 2006 1. 12.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별표 2 및 별표 4의 관할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함.(안 별표 2, 별표 4)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가. 안 제5조에 부교육감을 명문화할 바에야 동 조례 제2조에도 부교육감  
삽입여부
  - 상위법령에 부교육감의 직급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의관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
- 나. 동 조례 제2조에 부교육감 삽입여부
  - 동의함
- 다. 부교육감 삽입여부에 대한 논란 무방여부
  - 삽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으로 큰 위반은 되지 않으며, 법적인면  
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 부교육감 설치 규정 타 시·도 현황은
  - 일부 시·도는 반영, 일부 시·도는 미반영
- 마. 부교육감 삽입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 삽입 여부
  -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 부교육감의  
설치 및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2006. 1.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2중 별표 2 및 별표 4의 관할 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  
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3을 보면 부교육감이 명시되어 있고, 개정조례 제5조에  
부교육감의 설치 및 권한을 신설하면서, 제2조에는 부교육감이 누락되어,

- 제2조의 제목 중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2조의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호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제2호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제3호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 5. 수정안 주요 내용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3을 보면 부교육감이 명시되어 있고, 개정조례 제5조에 부교육감의 설치 및 권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2조의 본문에 부교육감이 누락되어 “부교육감”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수정주요골자

- 제2조의 제목 중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으로 함.
- 제2조의 본문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으로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2. 16.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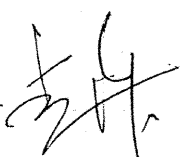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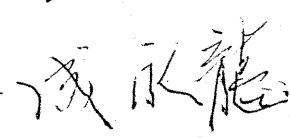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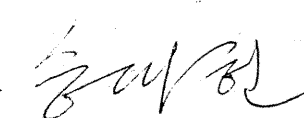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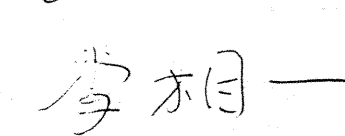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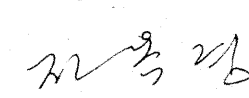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상일

진옥경

이 기 수   
김 남 훈   
성 영 용   
송 대 현   
이 상 일   
진 옥 경 

(별첨 6)

의안번호	제 188 - 3 호
의 결 년 월 일	2006. 2. 16 . (제188회)

## 결의문 채택의 건

- 교육재정 살리기 촉구 -

제 출 자	이기수 교육위원외 6명
제출년월일	2006. 2. 14.

# 결의문 채택의 건

- 교육재정 살리기 촉구 -

의안 번호	188-3
----------	-------

발의년월일 : 2006. 2. 14.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외 6명

## 1. 주 문

○ 정부와 국회가 잘못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현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 불이행으로 2005년도 16개 시·도교육청에 약 4조 5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더욱 악화되어 채무발생 예정액이 6조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우리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대 내외로 널리 알려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을 지켜 부도위기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함.

## 2. 제안사유

○ 정부와 국회에서, 잘못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현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 불이행으로

- 2005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지방채발행 예정액이 2조 2천억원에 이르고,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발행액은 1조 6천억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천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조 5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 2006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 발생액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3,500억원, 예산부족으로 약 5천억원의 인건비와 약 1조 7천억원의 신설학교 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는 2005년도에 비해 약 1조원이 부족하게 편성 되는 등 최소한 6조 5천억원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명 이상 부족하며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런 열악한 초·중등교육의 여건을 유지하는데도 2006년도 기준으로 약 6조 5천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국회의원에게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을 지켜, 부도위기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3. 결의문(안) : 붙임과 같음

# 결 의 문

## - 교육재정 살리기 촉구 -

2세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잘못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현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은 부도상황에 처해 있다.

2005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지방채발행 예정액이 2조 2천억원에 이르고,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발행액은 1조 6천억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천억원에 이르는 등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조 5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였다.

2006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발생액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고, 지방채발행 예산액은 3,500억원, 예산부족으로 약 5천억원의 인건비와 약 1조 7천억원의 신설학교 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는 2005년도에 비해 약 1조원이 부족하게 편성 되는 등 최소한 6조 5천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명 이상 부족하며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런 열악한 초·중등교육의 여건을 유지하는데도 2006년 기준으로 약 6조 5천억원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대 내외로 널리 알려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시 개정하고 현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을 지키도록 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와 여·야국회의원은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시 개정하고, 현 정부는 지난 선거 때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재정확충과 교육여건개선 선거공약을 지켜, 부도 위기의 초·중등교육재정을 정상화 하라.

1. 정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즉각 확보하라.

1. 우리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2월 16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교육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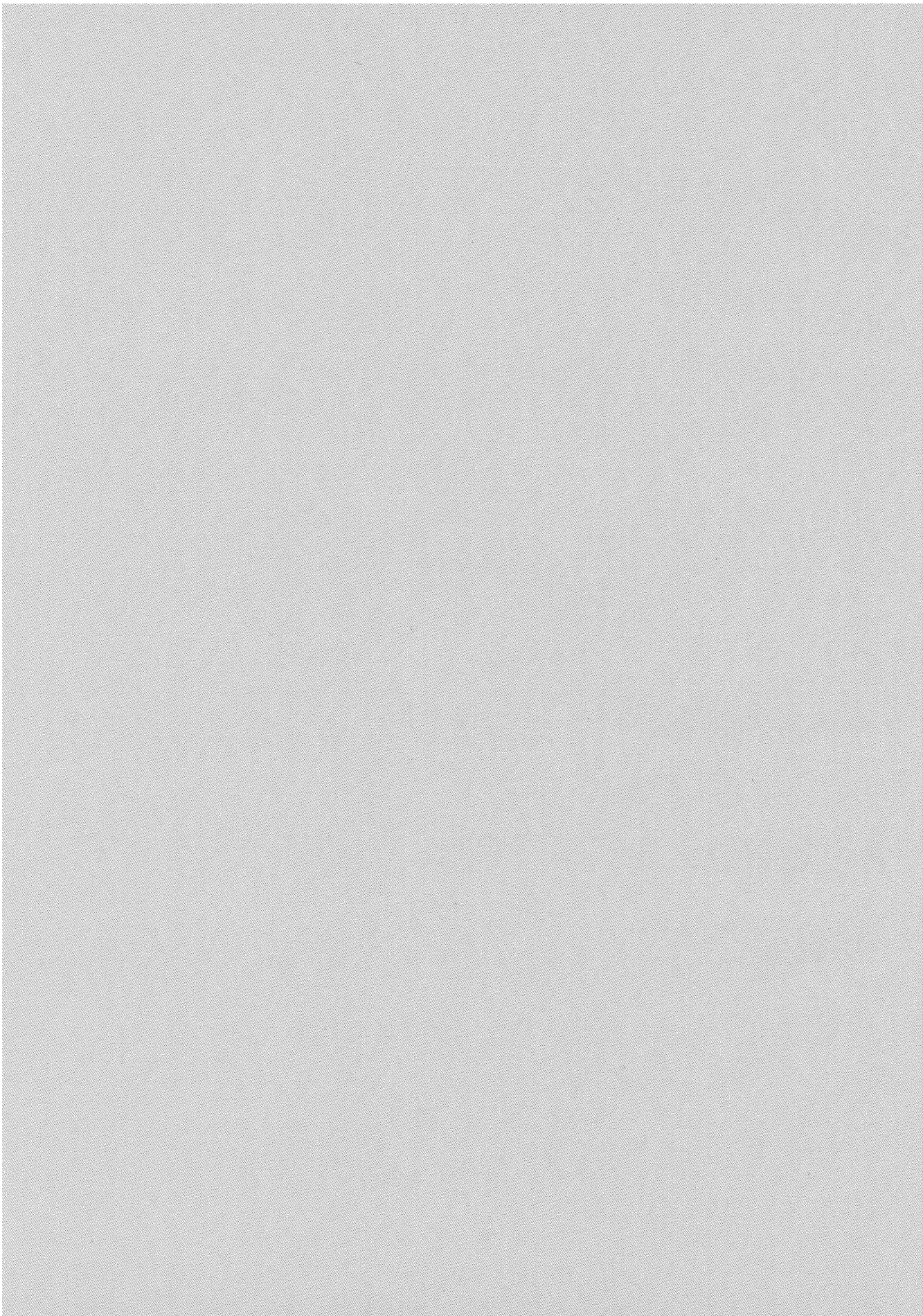


第18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77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87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11시 30분

## 議事日程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개회)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이기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는 조례를 심사해 주시고 저도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만히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33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김남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을 도와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34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

문화하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괴산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관련 조항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으로 두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부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하고 별표2 및 별도4의 관할교육청란 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지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그 동안에 이제 부교육감을 명문화하지 않다가 지금 5조로다가 명문화시키는 거죠.

● 총무과장 신건환

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냈는데, 제 생각에는 기왕 5조에 부교육감을 명문화할 바에야 2조에도 국장 앞에 부교육감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직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1항 별표3에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교육감의 직급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규정 등 부교육감의 직급을 규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 법제심의관의 의견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규정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시다만, 행정기구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필요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어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으니까 부교육감 직급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럴 바에 2조에도 국장 앞다가 부교육감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예, 동의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지금 2조에 국장·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교육감을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그래서 거기도 부교육감 그 두 가지를 삽입해야할 것 같

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정발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집행청 관계관의 의견도 들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우리가 첫 번 질의니까 전체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수합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사항들을 같이 수정발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네, 그래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래서 지금.....

● 진옥경 위원

질의응답을 마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기수

글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 질의인데 위원님들 그 사항을 알으셨으니까 그 사항을 넣어 갖고서 나머지 위원들이 수정하자는 안이 또 나온다면 전체를 같이 수합을 해 갖고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그것을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그간에 이것이 부교육감직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넣어도 무방하고 안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넣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으로 큰 위반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전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일부 시·도는 들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들어있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작년 11월에 이것이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처럼 이것을 조례로 넣는 시·도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말씀이 계셨을 때 저희

들이 법 체계상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넣은 거거든요.

● 진옥경 위원

다른 부교육감님들이라든지 뭐 회의가 계속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가 논의가 안 됐었던 모양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다른 회의에서 전국적인 어떤 회의에서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넣는 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해서 일괄적으로 넣자 말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 부교육감 직책과 같이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 그런 다른 조례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만 이렇게 문제가 새로이 넣는 형태로 지금 직급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다른 법도 한번 조례도 검토를 해서, 혹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어떤 법 체계상 맞는다던가 또 일목요연

하게 정리가 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자 조례 하나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안은 부교육감 직책에 관련한 것뿐이라서 나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청은 당연히 이로 인해서 영향받을 조례나 다른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저는 비단 또 이상일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을까 지금 이로 인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도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고 또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부교육감에 대한 직책문제 하고 또 교육청 명칭문제까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옥경 위원

마찬가지로 괴산중평도 그로 인해서 정비해야될 부분들이 다른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요번 조례에 개정이 되면 하위 규칙이라든가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괴산군이 괴산군과 중평군으로 분리됨으로 해서 교육청 명칭을 두 군을 다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바꾸는 얘기인데, 지금 괴산에 관하였던 모든 조례나 다른 쪽에 된 것을

전부 괴산중평쪽으로 바로 이것이 확정된 후에 하는 작업을 서둘러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이상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 별표3을 보면 부교육감이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도 조례 제5조에 부교육감을 추가하면서 제2조의 제목을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으로 하고 내용을 다음 각 호에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호 본청의 부교육감·국장·담당관·과장, 제2호 지역교육청의 국장·과장, 제3호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제목 중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으로 수정하고, 제2조의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호 본청의 부교육감·국장·담당관·과장, 제2호 지역교육청의 국장·과장, 제3호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남훈,

위 원 성영용, 송대헌,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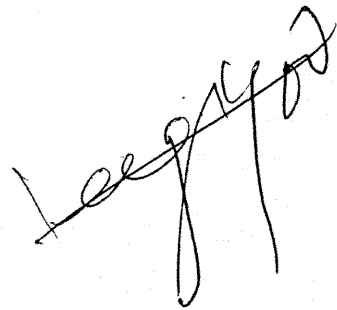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2. .

위원장 이 기 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이 기 수' (Lee Ki-su), written over the printed name.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 2.14.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